

노량진(오전)	6시
오전(1부)	7시
주일에배	오전(2부) 10시
	오후(3부) 2시
수요일예배	저녁 8시 30분

서울 교회 02)533-9191
장소: 강사구 공항대로 376 KBS스포츠월드



1부(오전)	7시
2부(오전)	10시
주일에배	3부(오후) 2시
	수요일예배 저녁 8시 30분
	금요일예배 저녁 8시

인천 교회 032)763-9191
장소: 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대한예수교장로회 예수중심교회 2021년 2월 28일 (제1086 호)

(서울)서울시 용산구 용산우체국 사서함 37호 Tel. 02)533-9191 Fax. 02)592-9191 (인천)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Tel. 032)763-9191 Fax. 032)575-5730 http://www.jcc.tv(철야 주일 예배 위성 및 인터넷 생방송)



봉 우 컬럼

인생은 보물찾기다

인생은 보물찾기다. “찾는 자는 찾을 것이요”(마7:7). 이는 찾고 못 찾는 것이 내 의지에 달려있다는 말씀이다.

임산부가 아이를 낳기 전 태어날 아이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기 전 천지창조를 통해 온 우주만물을 창조해놓으셨다. 그리고 자녀들이 찾아서 쓰고 개발하여 발전시킬 때 기뻐하시며 박수를 보내신다. 그 하나님을 생각하고 네가 찾고자 하는 보물을 게임하듯이 찾아보라. 네 삶에 보물을 찾을 것이다.

하나님은 보물을 먼 곳에 숨기지 않으셨다. 어린 시절, 보물찾기할 때 선생님들은 가까운 곳에 보물을 숨겨놓고 찾아오는 자에게 선물을 주시며 기뻐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것들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찾기 어렵지도 않다. 찾고자 하면 찾게 되고, 하고자 하면 할 수 있다. 그중 꼭 찾아야 할 보물은 나의 적성과 재능이다. 그것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안에 잠재되어 있다. 그것을 찾아야 내가 장래 가야 할 길을 찾게 되고, 잘하는 것을 기쁨으로 하기에 행복할 수 있다. 나는 가끔 ‘다시 태어나는 세상이 있다 해도 목사가 될 거다.’라는 말을 한다. 왜냐? 그것이 내게 맞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천직이라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험난한 길을 왔지만, 이기고 승리할 수 있었다.

‘나는 재주도 없고, 달란트도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 No! 없는 것을 찾으라고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은 굼벵이에게도 구르는 재주를, 자기가 낳은 알 하나 책임지지 못하는 타조에게도 달리는 재주를 주셨다.

찾지 못함은 찾지 않아서다. 아니면 남의 것이 좋아 보여 자기 것을 하찮게 여기기 때문이다. 아무리 좋은 신발이라도 내게 맞지 않으면 발이 부르트고, 발이 아픔으로 온몸이 아프게 되는 법, 하나님이 주신 적성과 재능은 내게 꼭 맞는 것이니 찾아 개발하라. 그러면 성공하게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칭찬하실 것이다.

내 적성과 재능을 찾아 키우는 것이 내 삶의 제일가는 보물이다.

나는 다른 방법을 모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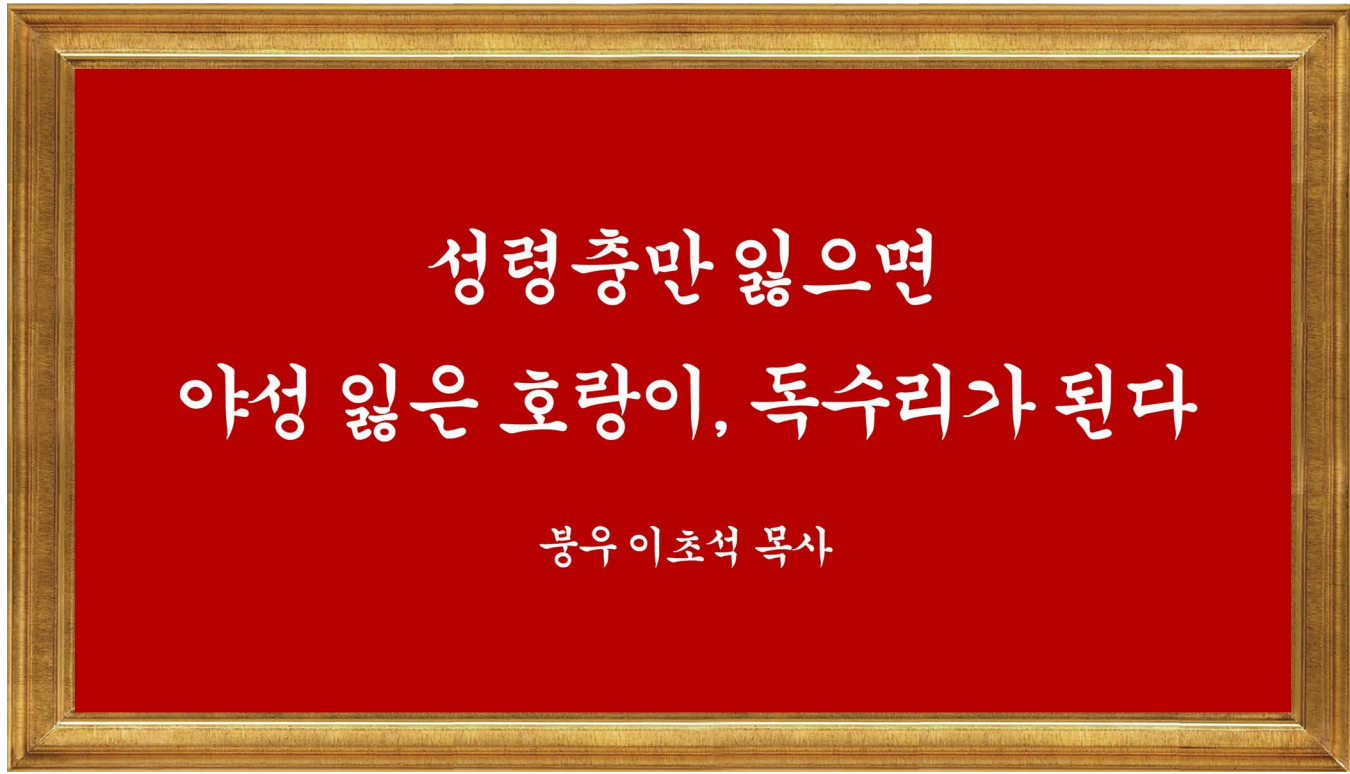
재정적 지원을 요청하는 제자들이나 타교단 목회자들에게 목사님이 꼭 하시는 말씀이 있다.

“내가 돈을 주라, 기도를 주라? 나 같은 한 사람에 구하겠노라!”

당장 돈이 절박한 상황에서 이런 응답은 참 난감할 수밖에 없을 것이나 ‘좋은 주인이 책임진다’는 기본 명제를 기억한다면 백번 지당한 말씀이 아닐 수 없다. 목사님도 36년 목회 여정에 얼마나 시행착오가 많으셨겠나? 스스로 간증하시듯, 권력자를 의지했다가 개망신을 당하고

귀머거리, 앓은뱅이, 소경, 암 환자, 정신병자 등 각색 질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기사와 표적을 보여주며 세계 72개국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이 모든 것이 인간 이초석의 힘과 능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기도하여 받은 성령의 능력으로 된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도 아십니다. 내가 다른 방법을 모른다는 것을, 다른 방법을 찾지 않는다는 것을. 나는 지금까지도 그 래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사도 바울 말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이

하나님 자녀의 권세도, 능력도 다 잃어버린 채, 문제가 생기면 우왕좌왕, 안절부절, 나아가 불평불만에 원망까지, 말도 아닙니다. 이게 다 야성을 잃어버린 결과입니다. 야성을 잃은 호랑이, 야성을 잃은 독수리, 야성을 잃은 상어, 조련사에 길들여진 맹수는 더 이상 맹수가 아닙니다. 집채만 한 코끼리가 다 썩은 동아줄에 매여 있으면서도 꼼짝 못하고 복소리, 장구소리에 춤이나 추고 있지 않습니까? 바다의 포식자 상어가 수족관에 갇혀 먹잇감이 술하게 곁을 지나다녀도 눈길 한



회개한 뒤 오로지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만 의지한다고 고백하지 않았는가? “세상 어디에 가서든 어린 아이들에게 물어보면 답은 똑같습니다. ‘아프면 누구에게 달려가니? 돈이 필요하면 누구에게 달라고 하니? 배고르면? 갖고 싶은 게 있으면?’ 백문백답이 모두 아빠, 엄마를 찾는다고 합니다. 어린 아이들은 절대 경찰을 찾거나 병원을 찾거나 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엄마, 아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라는 믿는 자들이 문제만 있으면 세상의 권력자, 재력 있는 자에게 줄을 대려고 아우성이고, 아프면 병원부터 찾습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아버지여야 합니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글쎄 나는 다른 방법을 모릅니다. 내 일생은 기도였습니다. 오직 기도로 오늘까지 달려왔습니다. 병어리,

고상한 지식 외에 다른 것은 모릅니다. 아니 다른 것은 아예 알지 않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미 성령의 능력을 체험했던 자들이, 특히 우리 사랑하시는 예수중심교단 성도들이, 문제가 있으면 모여서 합심기도하고, 전도하고, 병든 자가 있으면 기도의 용광로를 만들어 귀신 쫓고 안수하며 성령의 능력으로 기뻐했었던간, 그 뜨겁던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과거의 영광만을 말하며 지금은 위기 앞에, 문제 앞에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져있기에 걱정입니다. 마치 애완고양이가 주인이 주는 사료에 길들여져 쥐가 돌아다녀도 잡기는커녕 쥐가 무서워 도망다니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고양이 본연의 야성을 다 잃어버린 겁니다. 세상이 주는 달콤함에 취해 현실에 안주하고

번 주지 못하고 조련사가 주는 죽은 생선이나 먹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조련사가 만들어놓은 함정에 빠진 줄도 모르고 본연의 야성을 다 잃어버린 결과입니다. 개구리가 점차 데워지는 물이 저를 죽이는 줄도 모르고 따스함에 취해 있다가 죽는 꼴입니다. 세상의 쾌락에 취해 하나, 둘 타협하다 보니 어느새 마귀의 사술에 얽매어 움작달작못하는 신세가 되어버린 겁니다.

야성을 되찾아야 합니다. 잃었던 첫사랑을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회복해야 합니다. 갈릴리 호수에 주무시던 예수님을 깨우듯, 우리 속에 잠자는 성령의 능력을 기도로 깨워야 합니다. 이것만이 오늘의 위기를 극복하는 길입니다. 할렐루야!”

한은택 목사
henry8829@naver.com

주일에배(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에 따라 20% 대면예배 실시)
1부: 오전 7시 2부: 오전 10시 3부: 오후 2시
수요일예배 저녁 8시 30분 문의: 02. 533. 9191



이초석 목사 주일설교(요1:12~13)

네가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지 알라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고,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기본이요, 기초입니다. 이 정체성이 흔들리면 신앙은 무너집니다. 요즘 기독교인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하고, 세상의 유혹에 넘어지고, 세상의 비난에 잔뜩 움츠러드는 것은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능력이 없고, 뿌리 없는 나무처럼 이리저리 흔들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호적서류 떼어 보셨지요? 호적서류를 떼어보면 그 안에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잘 나와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증명하는 증명서입니다. 자! 이제 호적을 떼어봅시다.

먼저 요한복음 1장 말씀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요1:12). 갈라디아서 4장에도 다시 말씀하십니다.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갈 4:4~7). 로마서 8장의 말씀도 있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롬8:14~15). 이 모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

또 호적에 보면 부모 자식 관계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형제간의 관계도 나와 있지요. 성경에도 당연히 잘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요20:17). 이는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무덤을 찾아온 마리아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라고 하

심으로 우리가 예수님과 형제가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맏형이요,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은 예수님의 형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벌써 호적에 올리셨건만, 우리가 이를 알지 못하는 어쩔 일까요? 그것은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 하시나니”(롬8:16). 성령을 받아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임을 믿게 되고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늘의 것과 땅의 것, 땅 아래 것들은 다 복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분 이 만물을 만드셨고, 삼라만상을 주관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모든 전권을 예수님께 다 이양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나아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마28:18). 더욱 놀라운 사실이 있는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권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게 되면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이 우리에게도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행1:8).

어느 사람이 암탉이 알을 품을 때 주워온 독수리 알을 몰래 가져다놓고 함께 품게 했습니다. 알이 부화하면서 병아리도 나오고, 독수리 새끼도 나왔고, 이것들은 함께 자랐지요. 세월이 지난 어느 날, 닭들이 있는 하늘에 독수리 한 마리가 나타났습니다. 어미 닭은 황급히 다들 피하라고 했는데, 한 놈만은 유심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생김새가 자기와 흡사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도 형제들과 자신의 모습이 너무 달라 고민도 하고 갈등하며 살았는데, 오늘 하늘을 나는 독

수리에게서 자기의 모습을 발견한 것입니다. 이놈은 얼마 몰래 산에 올라가 아까 독수리가 했던 것처럼 하늘을 날아보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안 되더니 차츰 날개에 힘이 들어가 날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을 날고 있는데 아까 봤던 독수리가 다시 나타나 말했습니다. “넌 닭이 아니야. 창공을 훨훨 날 수 있는 독수리야. 저 닭들은 네 밥이라고. 내가 그걸 알게 하려고 아까 나타났던 거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권세 있는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셨고,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는 능력을 행하셨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본을 보이신 것입니다.

“너희도 이처럼 할 수 있다. 너희

는 마귀의 자식이 아니야. 하나님의 자녀야.”

저에게 두 아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어릴 때는 제가 운전하는 것을 보면 ‘와!’ 하며 신기해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이 장성하여 운전면허증을 따니 오히려 저를 태우고 다닙니다. 그들이 제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장성하니 제가 했던 일을 하고, 저보다 더 큰 일도 하더라 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요14:12). 여러분이 성령에 충만하여 믿음의 장성한 자가 되면 예수님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 예수님의 아버지는 우리의 아버지이고, 예수님의 권세는 곧 우리의 권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가 가진 모든 것을 우리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런 어머니마한 권세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야성을 잃은 호랑이처럼, 야성을 잃은 독수리처럼 무능력하게 살고 있습니다. 호랑이가

가는 줄에 묶여 끌려 다니는 것이 정상입니까? 아니지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무능한 것은요? 정상이 아닙니다. 병과 가난과 저주와 고통을 주는 마귀와 귀신을 내쫓을 수 있는 권세가 있는데, 그것들의 밥이 되어 끌려 다니고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성령을 받은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성령을 받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성령을 받은 믿음의 선전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마귀와 그의 추종자인 귀신을 내쫓고 병을 고쳐야 정상입니다(막16:17~18). 성령을 소멸한 자는 야성을 잃은 호랑이와 같습니다.

야성을 잃은 호랑이나 성령을 잃은 자가 같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아십니까? 아무나 부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이미 택하신 자녀들에게만 주신 혜택입니다(엡 1:4). 저는 ‘아버지~’ 이렇게 부르지만 해도 눈물이 납니다. 너무 감사해서요. 저 같이 부족하고 죄 많은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세계로 나가 복음을 전하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자식들은 나이가 들었어도 ‘아버지, 돈 주세요. 이게 필요해요.’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아버지라면 필요한 것을 구하세요. 달라고 떼주세요. 힘들거든 그 앞에서 우세요. 그러면 능력이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사랑이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고, 위로하시고, 인도하실 겁니다. 저는 다른 방법을 모릅니다. 어렵고 힘들고 아프고 부족하면 그냥 ‘아버지~’만 부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다 해주십니다.

당신이 잃어버린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이를 회복하면 인생도, 신앙도 회복될 겁니다. 누가복음 15장에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하고 돌아온 아들이 ‘아버지~’ 하고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다시 자식으로 받아주고, 가락지를 끼워주며 잔치를 배설한 것처럼 하나님도 당신이 돌아올 때 당신을 받아주시고 다시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아버지이십니다. 할렐루야!

구제 및 선교 후원금

1379-01-001903

농협

695001-01-122494

국민은행

예금주: 예수중심교회



총회장 이초석 목사

펀드 투자전략

자산을 운용함에 있어 우선 주식과 채권의 투자비율을 결정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주식과 채권에 대한 투자비율을 결정한 후 펀드 투자를 했다면 또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먼저 본인이 어떤 종류의 주식형 펀드에 투자하고 있는지를 확실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과는 사과와 비교해야 하듯 펀드 수익률을 평가할 때 가치형 펀드는 가치 펀드끼리, 성장형 펀드는 성장 펀드끼리 비교하는 것이 좋습니다. 성장 펀드보다 수익률이 낮다고 해서 금 펀드매니저를 탓하지 말라는 것이지요.

가장 좋은 펀드 투자전략은 자산을 서로 다른 3~4개의 주식형 펀드(성장, 가치, 중소형 등)에 나눠 투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언제나 내 자산의 일부가 주식시장에서 가장 수익률이 높은 섹터에 투자돼 있게 됩니다. 또한 주식형펀드에 돈을 추가할 때는 몇 년간 수익률이 극히 저조했던 섹터에 투자하는 펀드에 넣습니다. 피터 린치는 꾸준히 좋은 성과를 내는 펀드를 골라 투자한 뒤에는 오래 보유하고, 이 펀드에서 저 펀드로 끊임없이 옮겨 다니는 것은 순자산의 손실을 가져오는 매우 값비싼 습관이 될 뿐이니 유의하라고 조언합니다.

개별 주식에 투자할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유념하면 좋습니다. 대부분의 좋은 기업은 매년 배당금을 올린다는 사실입니다. 단기적으로 손해를 볼 수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수익을 거두게 된다는 것이

지요. 주식시장에서는 큰돈을 벌 수도 있지만 큰돈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이 사실은 늘 경험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돈을 투자하기 전에 반드시 투자할 기업을 조사하고 분석해야 합니다. 피터 린치는 주식에 투자할 때는 항상 여러 종목에 분산투자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몇 개 종목에 투자하든 대개 5개 중 하나는 아주 좋고, 하나는 아주 나쁘고, 나머지 3개는 그저 그럴 것이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종목을 고르기만 해서 안 되고 종목을 고르기 전에 반드시 숙제를 해야 합니다. 숙제란 바로 기업에 대한 조사와 분석을 말합니다. 전력, 통신 등 공공 서비스 주식은 배당을 많이 주지만 큰돈을 벌게 해주는 것은 성장주입니다. 주가가 많이 떨어졌다고 더 떨어지지 말란 보장은 없기에 주가가 싸다고 무작정 매수해서는 안 되며 그 기업에 대해 잘 알아보고 사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피터 린치는 새로운 정보를 분석하기 어려울 만큼 많은 종목을 보유하기보다 정기적으로 투자하라고 말합니다.

목사님은 하나님께서도 철저하게 준비하여 다 갖추시고 찾으라 하시는데 우리가 정보를 수집, 연구개발하지 않고 어찌 세계를 정복하겠느냐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상상할 수 없는 것들을 부지런히 찾아서 개발하고 쓰고 남에게 주면서 누리는 2021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미경 권사
lmkwdf@hotmail.com

세 나무 이야기

‘세 나무 이야기’라는 책 내용이다. 올리브나무와 떡갈나무, 소나무에게는 원대한 꿈이 있었다. 올리브나무는 보석상자가 되어 그 안에 보물을 담은 꿈을 꾸었다. 그러나 나무꾼은 그 올리브나무로 구유를 만들었다. 떡갈나무는 왕을 심는 배의 일부가 되고 싶었으나 나무꾼은 떡갈나무로 조그만 뉘싯배를 만들었다. 소나무의 꿈은 높은 곳에 서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번개가 치더니 소나무를 쓰러뜨렸고, 소나무는 쓰레기 더미에 던져졌다. 세 나무는 모두 자신의 가치를 상실했다고 생각했다.

한편, 마리아와 요셉이 아이를 낳아 구유에 뉘었다. 이 구유가 그 올리브나무로 만든 것이었다. 올리브나무는 가장 귀한 보물인 하나님의 아들을 담게 된 것이다. 장성한 예수님이 호수 건너편으로 가기 위해 작은 뉘싯배를 선택하

셨다. 위대한 왕을 태우고 바다를 건너고 싶었던 그 떡갈나무는 만왕의 왕을 태우게 된 것이다. 몇 년이 흘러 로마 병사들이 쓰레기더미에서 소나무를 찾아 십자가를 만들었다. 그 소나무에 예수님이 달리게 되었다. 이 소나무는 하나님의 사랑의 예표로 대신하고 있다.

하나님의 생각과 방법은 늘 우리와 다르나 언제나 선을 이루신다. 그래서 낙담하지 않아야 한다. 세 나무처럼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고,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결국 아름답게 결말이 나기 때문이다.

“여호와와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사55:8~9).

이초석 목사 저서 ‘사랑이 무르익어야 결혼에 골인한다’ 중에서



주인의식

여보게!
나이가 들어보니까 뭐든 자기 하기 나름이라는 생각이 드네. 무슨 일에도 잘하려면 마음가짐이 중요하지. 바로 주인의식이야. ‘이것은 내 일이다, 내가 이곳의 주인이다.’라는 마음 말일세. 그게 뭐 대수로운 걸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주인의식을 가지고 있느냐, 안 가지고 있느냐의 차이는 실로 엄청나지.

좀 오래전에 기도원에 닭 3백 마리를 들인 적이 있었네. 그런데 얼마 있다 가보니 닭이 겨우 9마리밖에 없는 거야. “아니, 그 많던 닭이 어디 갔냐?”고 놀라서 물었더니, 기도원 식구들이 하는 말이 방목을 하다 보니 살행이도 물어가고, 독수리도 물어가고, 족제비도 물어가고 그래서 이렇게 되었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한 장로가 지나가는 말로 “자기 것이 아니니까 그렇죠.”라고 했네. 나는 그의 말에 무릎을 쳤지. 100% 옳은 말이었거든. 살행이나 족제비, 독수리가 문제가 아니라 주인의식이 없기 때문에 일이 그 지경에 이른 거거든. 나는 기도원 식구들에게 이렇게 말했네. “이게 너희 것이었다면 이렇게 두고 보고 있었겠냐? 자기 돈으로 산 자기 닭이라면 살행이나 족제

비가 물어 가는데 그냥 두고만 보고 있었겠냐?” 다들 깨닫더군요.

다음날 나는 닭장을 만들고 몇도 놓았지. 그리고 다시 닭을 사줬는데 이번에 가봤더니 글썽 닭이 500마리 가량으로 늘어났지 뭔가? 주인의식이 있고 없고가 이렇게 다른 거야.

여보게!
주인의식이란 자기 일에 주도적으로 책임감을 가지고 일하는 태도를 말하지. 반대의 의미는 곧 책임감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을 뿐더러 겨우 시키는 일이나 하는 노예의식을 뜻한다네. 그런 자들은 게으르고, 일이 발생하면 핑계나 변명으로 일관하지. ‘내가 아니라도 누군가가 하겠지.’ 하고 설렁설렁, 대충대충 시간을 때우는 자들이야.

부디 자녀들에게 무슨 일에도 주인의식을 갖고 하라고 가르치게. 주인의식을 가지고 임하면 아이디어가 샘솟고 지치지 않아도 진짜 주인이 된다고 말이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눅16:10).

봉우

꼰대가 되지 않으려면

‘꼰대’, 이전에는 기성세대나 나이 드신 분들을 뜻하는 은어 내지는 속어였다면, 요새는 자기의 구태의연한 사고방식을 타인에게 강요하는 사람을 연령대와 상관없이 이르는 말로 쓰인다. 꼰대의 6하 원칙도 있다. ‘내가 누군지 알아(WHO)’, ‘뭘 안다고(WHAT)’, ‘어딜 감히(WHERE)’, ‘왕년에 내가(WHEN)’, ‘어떻게 나한테(HOW)’, ‘내가 그걸 왜(WHY)’, 이런 유의 말을 자주 쓸수록 자신도 모르게 꼰대가 되어가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믿음 안에서도 소위 ‘꼰대짓’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신앙의 연수가 높다고, 지식과 경험이 많다고, 직분이 있다고 상대방을 업신여기거나 함부로 대하여 상처를 주고, 심한 경우에는 실족시키는 일도 종종 보게 된다. 욕하면서 배운다고, 속으로는 적폐(積弊)라고 생각해왔으면서도 막상 내가 그 자리에 가면 같은 짓(?)을 따라하고 반복하기도 한다.

꼰대가 되지 않고 좋은 선배, 멘토, 리더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고린도 전서 13장은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 유익이 없고, 율리는 펡과

리와 같다고 이야기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고전16:14)고 권면한다. 사랑은 자랑하거나 교만하지 않고, 무례히 행치 않고 성내지 않는다. 즉 ‘꼰대짓’하지 않는다는 말이다.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사랑 없이 하면 꼰대요, 사랑을 담아서 하면 그 말로 상대방의 영혼을 살리는 사람이 된다. 사랑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꼰대와 어른을 판가름한다.

사랑의 유무를 어떻게 아나고? 어렸을 적에는 부모님의 잔소리와 선생님들의 야단이 마냥 듣기 싫지만, 철이 들면 그것이 그분들의 사랑의 표현이었음을 우리는 안다. 목사님께서 단에서 무서우리만치 강하게 말씀하시는 것도, 성령이 탄식하시기까지 듣는 우리의 영혼이 잘 되고 강건하기를 바라시는 목사님의 사랑이 담겨있기 때문에 은혜가 되고 능력이 있는 것이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다. 오늘 나의 말과 행동에는 상대방을 향한 사랑이 담겨 있는지, 나도 모르게 꼰대가 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자.

신혁주 전도사

:: 부르심의 소망 ::

미움받을 용기

고등학교 3학년 때, 뜻이 맞는 친구들이 모여 ‘낙타 무릎’이라는 기독교 동아리를 처음으로 만들었습니다. 낙타 무릎, 하나님 앞에 매일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사람의 무릎에는 낙타 무릎처럼 굳은살이 박힙니다. 이런 연유에서 낙타 무릎이라는 말은 묵묵히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을 지칭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매일 아침 수업 시작하기 전에 빈 과학실에 모여 기도하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다니던 고등학교는 미션스쿨이 아닌 일반 학교였음에도 한 선생님께서 흔쾌히 동아리를 맡아주셨고, 그 선생님을 통해 목사님도 모시게 되었습니다. 수능이 한 달 정도 남았을 때, 수험생들을 위해 학교에서 고사를 지낼 것이라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각 반에 흩어져 있던 ‘낙타 무릎’들이 급하게 모였습니다. 당장 기도해야 한다고 마음을 모았고, 빈 교실을 찾을 수 없어 강당 앞에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강당 옆에 매점이 있어서 다른 학생들이 많이 붐비는 시간이었습니다. 한창 다른 사람의 시선에 예민하게 반응할 소년들이었지만, 그때만큼은 큰 소리로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우상 숭배를 지켜볼 수만은 없기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얼마 동안을 기도한 뒤 다음 수업을 위해 교실로 돌아가던 순간, 누군가의 말이 제 귀에 들렸습니다. “저렇게까지 유별나게 해야 해?” 믿지 않는 친구였거나 했는데 그 아이도 교회를 다닌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이 너무 의아했습니다. 저와 제 친구들에게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날 오후에 체육수업을 마치고 수돗가에서 손을 씻고 있는데, 동아리 지도 목사님이 한 손에 성경책을 들고 학교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누군가 목사님께 연락했던 모양입니다. 그때는 그 목사님의 모습이 천군만마를 얻은 것처럼 든든하게 느껴졌는데, 지금 돌이켜보니 든든함이 다가 아니었습니다. 일반 학교에 성경책을 들고 가서, 고사 지내는 것은 하나님의 법도에 어긋나니 절대 안 된다고 담대하게 말씀하시다니…. 정말 멋진 목사님이셨습니다. 그 후 교내 방송이 울려 퍼졌습니다. “개 무릎인지 낙타 무릎인지 당장 교무실로 와!” 우리는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교무실에 모였습니다. 어쩌면 함께였기에 그랬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는 당당했습니다. 선생님이 우리에게 “고사 지낸다는 건 헛소문이었다, 왜 이렇게 난리를 치냐!”고 변명하며 화를 내셨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칭찬받은 것처럼 기뻐했습니다. 우리가 막아냈다! 하나님의 법대로 산다는 것은 유별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유별나지 않고는 세상과 구별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 보면, 경멸로 가득 찬 시선을 마주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또 그 시선을 혼자서 감당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혼자가 되었을 때 엄습해오는 두려움에 내가 지금 잘못 판단하는 것은 아닌지 헛갈릴 때도 있습니다. 그 두려움에서 평안을 구해도 계속해서 불안하기만 할 때, 감정에 속지 않고 믿음이라는 의지를 마음에 불어넣으며 외롭게 서 있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 말씀에 옳은 것이라면 마땅히 감내해야 한다는 것을 이제는 압니다. 그때에 나를 주목하시는 하나님의 시선을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정한 날에 그들로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 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에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이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말3:17~18).

박영신

rubyday0@naver.com

코로나19사태의 종식을 위해 다함께 합심으로 기도합시다!

:: 나도 건강할 수 있다 ::

깨닫는 자, 영혼육이 살아난다

구약을 보면 하나님께서 죄악의 종류별로 어떻게 죄를 씻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5장 14절에 예수님께서는 병든 자를 치유하신 후에 말씀하시니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도 보게 됩니다. 태생적으로 죄인인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새로워졌지만 날마다 연약한 생각과 습관과 마음을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존재임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회개를 하는 것은 영적, 혼적, 육적인 죄악을 씻음 받고자 하는 것이며, 이 과정을 한의학적으로 건강에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동양의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명의 편작(扁鵲)은 ‘두한족열 복불만(頭寒足熱服不滿)’이라는 말로써, 머리는 시원하고 발은 따뜻하고 배는 비워두는 상태를 가장 건강한 상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는 동서양 건강 진리의 요체인 수승화강(水昇火降)을 의미하며 수(水)기운은 위로 올라가고 화(火)기운은 아래로 내려가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머리가 시원한 것은 머리에 쓸데없는 잡념과 욕심

과 흥분과 중독과 분노와 억울함과 같은 다양하고 복잡한 감정의 노예가 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로 족열이라는 것은 발이 따뜻하여 혈액순환이 잘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요즘 사람들은 머리는 뜨겁고 발은 차가운 상태, 즉 건강의 정반대가 되는 상태로 건강성을 상실하고 살아가기가 쉽습니다. 발이 따뜻하기 위해서는 발로 많이 걸어서 하체(골반이하)가 튼튼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로 복불만이라는 것은 배가 더부룩하지 않게 먹는 상태, 즉 평소 조금 부족한 듯이 가볍게 먹고 소화가 잘 되는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며, 한 걸음 더 나아가 가슴부위도 시원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회개는 나의 행동을 돌아보는 시작이며 나의 행동이 누군가에게 피해가 되었다면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내가 잘못된 생각과 행동에 대해서 회피하지 않고 정직하게 주님께 아뢰고 자신을 낮추는 마음을 갖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회개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 앞에서 은혜를 얻고 믿음과 영적인 축복을 받지만, 육체적으로

도 머리가 맑아지게 되어 머리의 열이 발(하체)로 내려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욕심을 내려놓게 되어 가슴과 배가 시원해집니다. 누군가와 갈등에 대해서 내가 먼저 회개하고 용서를 하기 때문에 내 안에 복잡한 갈등이 줄어들어 암 발병률을 낮추며 내 몸이 건강성을 회복하게 됩니다. 회개는 영적인 축복과 혼적인 사고의 변화, 그리고 육적인 건강성을 회복하는데 주님이 주신 소중한 기도이며 매일매일 새로운 회개 거리를 찾는 것은 자신과 타인에 대한 깊은 통찰력을 키워주며 항상 유연한 사고와 겸손한 삶을 살기에 치매를 예방할 수 있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날까지 소중한 기도의 습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회개에 대한 한의학과 건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오늘도 회개의 기쁨 가운데 건강성이 날로 회복되시길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행2:38).

Dr. 설재현 집사

:: 참된 깨달음 ::

그리스도인의 삶

그리스도인의 삶은 일등이 목표가 아니다. “온리원(Only One)”, 일류가 목표다. 세상 사람들과 차별화된 삶. 그러려면 삶의 목적이 남을 이기는 것이 아닌 자신을 이기는 것이어야 한다. 나를 이기는 삶에도 기준이 있다. 인간의 선(善)이 아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다. 그렇다면 일류의 삶은 어떻게 이뤄낼 수 있을까? 내면을 가꿈으로 가능해진다. 내면을 견고하게 가꾸어 나가면 삶의 만족도가 높아지기 때문이다. 내면을 가꾸는 삶은 작은 것에서 행복을 추구한다. ‘텐마크 사람’ 하면 떠오르는 삶이 ‘히게 라이프(Hygge Life)’, 사랑하는 사람과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뜻한다. 우리나라 말로 ‘소확행’, 즉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누리는 삶이다. 편안하게 함께, 따뜻하게 작은 것에서 행복을 누린다. 내면의 삶은 가치를 추구하는 삶이어야 한다. 신앙생활은 일등의 삶을 추구하지 않는다. 가치를 추구하는 삶이다. 일상에서의 행복을 추구하며 작은 것에서 삶의 의미를 발견한다. 바울이 지식을 배설물로 여길 수 있었던 것은 실리를 추구하지 않고 가치를 추구하는 삶이었기 때문이다.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부자가 되어 돌아왔다. 부(富)가 목적이었던 사람이었다면 그는 이때부터 천박한 감질을 했을 것이다. 그러나 내면을 가꾸는 삶을 추구했던 그는 소박한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예배자로 살아간다. 이는 하나님을 위한 삶이며, 곧 십자가의 삶이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의 말씀을 실천하며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것, 나의 인격을 성화시켜가는 것, 이웃을 사랑하며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발하는 것, 무엇보다 가치 있는 삶 아닐까.

김정옥 전도사

